

# 〈청산별곡〉의 후렴

##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의 뜻과 특징

성호경\*

- I. 서론
- II.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의 뜻
- III.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의 특징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청산별곡>의 후렴이 지닌 뜻을 몽골어로써 파악해 보았고, 그 후렴의 특징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알리 알리 알라성(또는 ‘알랑성’) 알라리 알라”는 몽골어의 명사 *šeng*(뜻은 ‘되[升]’)이 주어인 자동사 *yali-*(‘매우 많은 양이 되다; 좋은 품질이 되다’)의 2인칭 명령형(*yali*)들과 자원형들(*yali-ya*, *yali-ya-n*), 그리고 *yali-*의 현재 동명사형에 대격 조사가 붙은 말(*yalii-yi* 등)을 목적어로 한 타동사 *ali*(‘주어라! 나에게 다오!’)의 명령형이 이어진 것의 표기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뜻은 ‘대량(또는 양질)이 되십시오! 대량이 되십시오! (우리) 대량이 되게 하십시오, 되가(곡식이)! 대량이 됩을 주십시오! 대량이 되게 하십시오!’ 등일 수 있다.

그 작자는 뜻과 형태가 비슷한 몽골어의 명령법 형식들을 변화감 있게 반복하고 청자를 바꾸어 가며, 풍작을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요구를 묘미 있게 표현하고 전방위적으로 청원하게 했다.

후렴의 4음보는 작품 본문의 3음보격이 지닌 불안정한 유동성에 안정감을 보태 줄 수 있고, 또 일종의 ‘종결부 변형’으로서 각 연들에서 결말의 느

\*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명예교수

김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 소리들은 단조로움을 피하면서 원활하고 유창하며 밝고 산뜻한 어감을 준다. 그리고 같은 어간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어미들이 붙은 말들 등의 반복은 ‘통일성 확보와 그 속에서의 변화성 부여, 주제의 강조와 확장, 재미를 줌’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같거나 비슷한 모음들 또는 자음들의 조합은 청각적인 조화와 관련되는 효과들을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은 뜻과 소리의 특질을 지니기에, <청산별곡>의 시상 및 정서와는 판판인 그 말들이 고려 궁중 공연에서 임금에 대한 찬양의 성격을 띠 수 있는 말로서 후렴 자리에 들어갔으며, 조흥의 구실도 인상적으로 잘 수행했을 것이다.

핵심어: <청산별곡>, 후렴, 알리, 알라, 성, 알랑, 알라리, 몽골어, 뜻, 특질, 명령법, *yali-*, *šeng*

## 1. 서론

고려속요의 명작 <청산별곡(靑山別曲)>(전 8연)은 작자 미상이지만 고려 후기인 13세기 말엽~14세기 말엽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1)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靑山(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2)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1) 성호경, 『한국 고전시가 총론』, 태학사, 2016, 412면 참고.

- (7)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값대에 올라서/奚琴(해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8)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 작품의 각 연들 끝에서 반복되는 후렴(後斂)은 작품 향수(享受)에서 흥을 많이 돋우어 준다고 여겨진다.

이 인상적인 후렴은 16세기 중엽 무렵에 편찬된 가사집 『악장가사(樂章歌詞)』에서는 “알리 알리 알라성(제1연은 ‘알라성’) 알라리 알라”이고, 그에 앞서 편찬되었을 악보집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악곡 구성이 有節形式이면 노랫말의 제1절만 실림)에서는 “알리 알리 알라 알라성 알라”이다. 이 두 이형(異形)들 간의 전승상(傳承上)의 관계는 불분명한데, 『악장가사』에 실린 후렴은 『시용향악보』에 실린 후렴의 구성 형태들을 다 포함하면서 후자에 없는 형태들(‘알라’, ‘알라리’)도 보인다.

이러한 <청산별곡>의 후렴은, 무의미한 소리인 구음(口音)이나 의성(擬聲)이 아니라,<sup>2)</sup> 13세기 중엽~14세기 중엽 동안 몽골-원(元) 제국(帝國)의 속국이었던 고려의 상층인들 일부 등이 배우고 익혔던 몽골어(한국어처럼 語根에 接辭가 결합되어 문장 내 각 단어의 기능을 나타내는 膠着語이며 기본 어순이 ‘주어+목적어+서술어’임. 借用語를 제외하고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조화 규칙이 적용됨)를 표기한 것일 가능성(또는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 뜻을 몽골어로써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드물었던 데다 소략하거나 부분

2) 양주동, 『麗謠箋注』, 을유문화사, 1947, 277면 등에서는 <청산별곡>의 후렴에 대해서는 논급하지 않았지만, <西京別曲>의 ‘위 두어령성 다령디리’ 등을 ‘樂音에 맞추기 위한 辭說’로 보았다. 그리고 정병욱, 『악기의 구음으로 본 별곡의 여음구』, 『관악어문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20면 등에서는 <청산별곡> 후렴의 대부분은 관악기인 날라리(太平簫, 胡笛)의 소리를 입으로 흉내 낸 구음이며, ‘성’은 바라나 정의 소리(‘의성’)를 끼워 넣은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옛 악보들과 문헌들 그리고 현행 악기의 구음들 등에서 ‘알라’(또는 ‘날라’)와 ‘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말들은 무의미한 구음이나 의성이 아닐 가능성(또는 蓋然性)이 크다.

적인 고찰에 그쳤고, 타당성이 의심되는 결과도 보였다.<sup>3)</sup>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악장가사』에 실린 <청산별곡>의 후렴을 주 대상으로 해서, 이전의 고찰을 기반으로 하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으며, 그 전부의 뜻을 몽골어로써 파악해 보겠고 그 특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이러한 고찰은 그 후렴이 작품 창작 당시의 몽골어를 대체로 바르게 사용한 것이며 정확하게 구전되다가 한글[訓民正音] 창제(1443년) 이후에 기록되어서 『악장가사』 등에 실렸다고 가정(假定)함을 전제로 한다.

<청산별곡>의 창작시기로 추정되는 13세기 말엽~14세기 말엽 동안 몽골-원에서 사용된 몽골어에 몽골 문어(Written Mongolian)<sup>4)</sup>와 중세 몽골어(Middle Mongolian)<sup>5)</sup>가 있다. 이 고찰은 그 두 언어들의 자료들(17세기

3) 최기호, 『<청산별곡>의 형성과 몽골 요소』, 『몽골학』 제13집, 한국몽골학회, 2002, 23~24면에서는 ‘알라’가 몽골어 *яла*-(그 기본형 *ялах*는 ‘이기다, 정복하다, 극복하다’ 등의 뜻임)이고 ‘성’이 ‘먼 과거나 원료형 종결어미 -сан(상, 승)’이며,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는 ‘이기자, 이기자. 이긴다. 이기리라. 이겼노라, 이겨!’ 등의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근대의 Khalkha어 등의 타동사 *yala*-(몽골 文語와 중세 몽골어는 *ila*-)와 과거완료형 어미 *-sAn*(또는 *-sng*; 몽골 문어 *-ysan/-gsen*, 중세 몽골어 *-qsan/-ksen*~*-ysan/-gsen*)으로서는 ‘알리’·‘알랑’ 등과 ‘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13~14세기에 *ila*-에 어미 *-ysan* 등이 붙은 형태(‘일락상’)가 소리가 다르며 모음조화 규칙도 벗어나는 ‘알라성’으로 표기되었을 리 없을 것이다. 또 ‘성’을 時制 어미로 보면, <서경별곡>의 후렴 속 “두어령성”(‘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dii üreng* + ‘성’으로 추정됨. 뒤의 주 8) 참조)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한편, 성호경, 『고려시가의 ‘무의미해 보이지만 유의미한 후렴’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56집, 한국고전문학회, 2019, 17~19면에서는 <청산별곡>의 후렴이 <서경별곡>의 후렴 속 ‘두어령성’ 및 <가시리>의 후렴 속 ‘증즐가’와 함께 ‘大豊·豊作’을 뜻하는 몽골어들을 함입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요한 일부의 뜻과 특성을 살폈다. 그 고찰에서는 ‘성’이 몽골어 명사 *šeng* (‘되’를 뜻하는 중국어 ‘升 *sheng*’의 차용어)의 표기이고 ‘알리’는 자동사 *yali*-(뜻은 ‘매우 많은 양이 되다; 좋은 품질이 되다’)의 2인칭 명령형의 표기일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밝혔다. 그러나 ‘알라’를 간칭형(*precative*) *yali-a’u*의 표기일 수 있다고 했는데, 13~14세기의 몽골어에는 간칭형이 없었다.

4) 13세기 초부터 20세기 초엽까지 문서들에서만 사용된 東몽골인들의 문어로서, 오랫동안 Uighur(Uyghur)인들로부터 차용한 몽골 문자(‘위구르-몽골 문자’)로 표기되었다. 몽골 문어는 몽골어의 口語들 및 方言들과는 크게 다르며, 음운 발달에서 12세기까지의 고대 몽골어(원시 몽골어) 단계에 머물렀다. 그 역사는 先古典期(pre-classical period; 17세기까지)와 고전기(classical period) 그리고 현대(modern; 20세기 초엽)의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Nicholas Poppe,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Wiesbaden, Germany: Otto Harrassowitz, 1954/1964, pp.1~4(§1~§7) 참조.

5) 13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 많은 문서들에서 여러 문자로써 기록된 몽골 語派의 구어이며, 오늘날에도 滿洲의 Dagur인들과 Afghanistan의 Moghol인들에 의해 사용된다.

중세 몽골어는 고대 몽골어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음운상의 특징들을 지닌다. ① 語頭의 \*p 또는 \*q가 *h*로 발달했다(\*는 再構形을 표시함). ② 모음들 사이의 \*y와 \*g가 더 이상 존재

이전의 몽골 문어는 문법과 正書法에서 다수의 불일치들을 보였음<sup>6)</sup>과 관련 연구 성과들에 주로 의거할 것이고, 17세기 이후의 몽골 방언들에 관한 연구 성과들도 참고하겠다.

## II.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의 뜻

<청산별곡>의 후렴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속의 ‘성’은, 근대 몽골어의 방언들인 Khalkha어와 Ordos(Urdus)어 등에서의 과거완료형 어미 *-san*(또는 *-sng*)이 아니라, <서경별곡>의 후렴 속 “두어렁성”에서의 ‘성’과 함께 몽골어에서 중국어의 부피 계량 단위인 ‘升(*sheng*)’을 차용한 명사 *šeng* (셩/성<sup>7)</sup>; 뜻은 ‘되’)의 표기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sup>8)</sup>

이 말 외에, <청산별곡>의 그 후렴 속에는 제2~8연에 ‘알리’(2회)·‘알라’(2회)·‘알라리’(1회)가 있고, 제1연에서는 ‘알라’들의 하나가 ‘알랑’으로 나타난다. 그중에서 ‘알리’와 ‘알라’는, ‘성’(되)과의 어울림 등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양이 되다; 좋은 품질이 되다’의 뜻을 가진 몽골어 자동사 *yali-*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음들은 아직 축약되지 않았다. ③ 모음 *i*와 *e*는 모든 위치들에서 유지된다. ④ 破擦音들인 *č*와 *ʃ*가, 일부 근대어들에서 *ts*와 *č*로 발달했지만, 모든 위치들에서 아직 齒擦音의 소리들로서 발음된다. Ibid., p.2(§3) 참고.

6) Ibid., p.3(§5).

7) 몽골어 발음의 한글 표기는 대체로 김기선, 『몽골어의 문자와 발음』(<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95523&cid=58250&categoryId=58250>)에 따르는데, 조선시대 한국인들의 몽골어 음운 인식을 고려하여 모음 *e*(Cyrill 문자는 *ə*)의 音價와 *ö*(키릴 문자는 *ө*)의 음가는 각각 ‘非’와 ‘非’ 외에 『蒙語老乞大』(18세기에 李喜大·玄文恒 등이 중국어 회화 학습서 『老乞大』를 몽골어로 번역한 책) 등에서의 ‘非’와 ‘非’도 함께 적는다(같은 책에서 舌側音 *l*을 ‘르’ 하나로만 표기한 것도 나타냄). 이하 같음.

8) 성호경, 앞의 글, 15~16면, 18면; 뒤의 주 17) 참조.

‘두어렁’은 몽골 문어의 자동사 *diigür-*(뜻은 ‘채워지다; 끝나다; 완성되다’ 등)에서 파생된 형용사(및 부사) *diigüreng*(‘가득 찬, 완전한; 충분히, 완전히’)의 중세 몽골어 형태인 *diüüreng*(두어렁/두우렁)의 표기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DYGYRENG/ДҮҮҮРӨН(Г)※ 키릴 문자 표기 [= *degyren, degyren, degyrin*] adj. and adv. Full, filled; complete, perfect; fully, completely, perfectly.” Ferdinand D. Lessing, *Mongolian-English Dictiona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60/2015, p.279.

※ 그 사전에서는 半子音 ‘y’를 ‘j’로 표기하였고, 기술적인 이유들 때문에 몽골어의 ‘č, ö, q, ü, j, ayi, eyi’를 각각 ‘c, ø, x, y, z, ai, ei’로 표기했다(Ibid., p.xii).

의 명령법들의 표기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sup>9)</sup> 그렇다면 다른 말들도 몽골어의 명령법으로 된 말들이거나 또는 앞에 든 말들과 잘 어울리는 말들을 표기한 것일 수 있다.

몽골어의 명령법에는 표지(標識; marker) 어미가 없이 동사 어간만으로 써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는 엄격한 명령을 나타내는 2인칭 명령형(the imperative of the second person) 외에도 여러 유형들이 있다.

그 여러 유형들로서, 원시 몽골어(Proto-Mongolic; 고대 몽골어 Ancient Mongolian) 또는 몽골 공통어(Common Mongolic)에는 자원형(自願形, voluntative; 1인칭이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냄. 표지는 \**-yA*, \**-yA-n*), 기원형(optative; 대개 달성 불가능한 소망을 나타내며, 모든 인칭들 또는 1인칭 단수에 적용됨. 표지는 \**-sU* 등), 소원형(benedictive; 2인칭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는 공손한 간청을 나타냄. 표지는 \**-d-kU(y)i* 등), 규정형(prescriptive; ‘미래 명령형’. 2인칭에게 보내는 위임이나 소망을 나타내며, 명령된 행동을 즉시가 아니라면 나중에 수행해도 됨. 표지는 \**-xA-rA(y)i*), 양보형(concessive; ‘3인칭 명령형’. 제3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명령을 나타냄. 표지는 \**-tU-kA(y)i* 등), 허락형(permissive; 또 하나의 3인칭 명령형. 표지는 \**-g*, \**-gV*), 의구형(dubitative;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누가 수행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타냄. 1-3인칭. 표지는 \**-xU-jA(y)i* 등), 가능형(potential; 긍정적인 소망이나 의심을 나타냄. 표지는 \**-m-jA*)이 있었다고 한다.<sup>10)</sup>

13~14세기의 몽골어들에서는 명령법의 유형들로서, 2인칭 명령형 외에, 몽골 문어에 자원형(1인칭 복수. 표지는 *-y-a/-y-e*), 기원형(17세기까지의 先古

9) 성호경, 앞의 글, 17~19면.

10) Juha Janhunen, “Proto-Mongolic,” Juha Janhunen ed., *The Mongolic Languages*, New York: Routledge, 2003, [https://media.turuz.com/Language/2011/0214-Mongolic\\_languages\(moghol\\_dili\)\(juha\\_janhunen\).pdf](https://media.turuz.com/Language/2011/0214-Mongolic_languages(moghol_dili)(juha_janhunen).pdf)(※ 그 책에서는 파찰음 *c*와 *j*를 *c*와 *j*로 표기했음), pp.22~23 참고(각 유형들의 성격은 주로 N. Poppe, op. cit., pp.89~91, §332~§342의 설명을 참고함).

한편, Nicholas Poppe,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Helsinki, Finland: Soumalais-Ugrianinen, 1955/1987, [http://altaica.ru/LIBRARY/POPPE/mongol\\_intro.pdf](http://altaica.ru/LIBRARY/POPPE/mongol_intro.pdf)(※ 그 책에서는 반자음 *y*를 *j*로, 파찰음 *j*를 *ʃ*로 표기했음), p.254에서는 규정형이 몽골 공통어나 원시 몽골어에 없었다고 했다.

※ 그 로마자 표기에서 대문자는 일반화된 형태 음소 또는 완전히 특정되지 않은 原音素를 표시하는데, 모음조화에 따라 *A*는 *a*나 *e*이고, *U*는 *u*나 *ü*이며, *G*는 *y*나 *g*임.

典 문어에서 1인칭 단수·복수. 표지는 *-su/-süi*), 소원형(선고전 문어에서 2인칭 복수. 표지는 *-dqun/-dkün*), 양보형(3인칭 명령. 표지는 *-tuyai/-tügei* 등), 의구형(1-3인칭. 표지는 *-yujai/-gijei*), 회구형(desiderative; 1-3인칭. 표지는 *-yasai/-gesei*)이 있었을 것이다.<sup>11)</sup> 그리고 중세 몽골어에 자원형(1인칭 복수. 표지는 *-yA*), 기원형(1인칭 단수·복수. 표지는 *-sU, -sU'Ai*), 소원형(표지는 *-DQUn, -GDUn/-GDUr*), 양보형(표지는 *-DUK'Ai*), 의구형(표지는 *-'UjA'(A)i*), 회구형(표지는 *-'AsA*)이 있었다.<sup>12)</sup> 한편, 규정형과 허락형은 몽골 문어와 중세 몽골어에 나타나지 않았다.<sup>13)</sup>

이를 참고하여, “알리 알리 알라성(제1연에서는 ‘알랑성’) 알라리 알라”의 몽골어 원어(原語)를 탐색하고 뜻을 파악해 보자.

“알리 알리”에서의 ‘알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Khalkha어 등에서의 타동사 *yala-*(뜻은 ‘정복하다, 패배시키다, 극복하다’ 등. 몽골 문어와 중세 몽골어는 *ila-*)<sup>14)</sup>의 활용형이 아니라, 몽골 문어의 자동사 *yali-*(알리/야리; 뜻은 ‘매우 많은 양이 되다; 좋은 품질이 되다’. 중세 몽골어는 미상임)<sup>15)</sup>의 2인칭 명령

11) Ibid., pp.252~260; Juha Janhunen, “Written Mongol,” J. Janhunen ed., op. cit., p.50 참고. 한편, N. Poppe,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pp.90~91 (§338~§341)에서는 자원형(1인칭)의 단수 어미가 선고전 문어에서 *-su/-süi*이고(복수는 *-y-a/-y-e*), 기원형의 어미가 *-yasai/-gesei*라고 했다.

12) 이 유형들은 모두 13세기 중엽에 위구르-몽골 문자로 기록되었을 *Mongyol-un ni'uča tobčā'an*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또는 1269년 이후의 그 Phags-pa(八思巴) 문자 轉寫本을 14세기 말엽에 漢字로 音譯한 『元朝秘史』 속에 나타난다. Volker Rybatzki, “Middle Mongol,” J. Janhunen ed., op. cit., pp.73~74 참고.

13) N. Poppe,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p.254, p.257.

14) “ILA- / ЯЛХАХ v.t. To conquer, defeat, vanquish, win a victory; to overcome, surpass, distinguish, surmount.”(F. D. Lessing, op. cit., p.401); “ЯЛХАХ 1. to win, to be victorious, ... 2. (яландавах, алан дий лэх, ялан туулах) to beat, to defeat, to overcome, to triumph over.”(Charles R. Bawden, *Mongolian-English Dictionary*,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1997, <http://altaica.ru/LIBRARY/mong/Bawden,%20Charles%20-%20Mongolian%20English%20Dictionary.pdf>, p.582).

15) “JALI- / ЯЛИХ v.i. To be in great quantity; to be of good quality.”(F. D. Lessing, op. cit., p.426). 그 네 예문들 중 “*casu jaliysan ygei*(= *casu yaliysan iigei*).”(英譯: ‘Only a little snow has fallen.’)는 ‘(내린) 눈이 매우 많은 양이 되지 않았다.’로 韓譯되었고, “*ene zil mal jalizu ygei*(= *ene jil mal yaliju iigei*).”[英譯: ‘This year the cattle are not too good (i.e. lean).]는 ‘올해 가축이 좋은 품질이 되지 않는다.’로 韓譯될 것이다.

그 형용사로서, 서술어로 쓰인(否定語를 수반했음) *yali*(뜻은 ‘중대하다, 요긴하다, 적지 않다’). “JALI / ЯЛИ -- *ygei*. Unimportant, insignificant, trifling.” Ibid., p.426)와 冠形語로 쓰인 *yaliyatai*(‘중대한, 의미 있는, 상당한 양을 가진’. “JALIJATAI / ЯЛИЯТАЙ adj. Important,

형(표지어미가 없음)을 표기한 것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뜻은 ‘대량(大量)이 되어라/되십시오!’ 또는 ‘양질(良質)이 되어라/되십시오!’일 것이다.<sup>16)</sup>

그리고 제2~8연의 후렴들에서 “알리 알리”의 뒤에 나타나는 “알라성” 속에서, ‘성’은 13세기 초엽부터 1368년까지의 몽골-원 제국 등에서 사용된 부피 도량형 단위(또는 그것에 맞도록 만든 계량 그릇)들 중의 하나인 몽골 문어의 명사 *šeng*(생/성; ‘되’를 뜻하는 중국어 ‘升 *sheng*’의 차용어인데, 西 몽골語群의 Oirat 문어에서는 ‘量’을 뜻했음. 중세 몽골어는 미상임)<sup>17)</sup>의 표기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šeng*은 주로 수확한 곡식의 분량을 계량하는 것이므로, ‘곡식’의 환유(換喩; metonymy)일 수도 있다.

‘알라’는 기본형 *yali-* 또는 그 2인칭 명령형 *yali*에 *a*나 *aa*(=*ā*) 또는 *a'a*(*aya*) 또는 *ya*가 붙은 말의 구어적(口語的) 발음을 표기한 것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몽골 문어의 구어적 발음에서 *yali*에 *a*, *aa*, *a'a*(또는 *aya*), *ya*가 붙은 말은 장모음을 가진 ‘알라아’로 발음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8)</sup>

significant; having a substantial amount.” Ibid., p.426)가 있다.

한편, 자동사 *yali*-(*yalix*)와 그 뜻이 주로 현대의 몽골국(외몽골)에서 통용되는 몽골어(Khalkha 어 위주) 어휘들을 수록한 C. R. Bawden, op. cit.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앞에서 든 형용사들에 해당하는 말들은 실려 있음).

16) N. Poppe, op. cit., p.252에서는 ‘2인칭 명령형’이 원래 3인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고 했다. *yali*가 만약 3인칭에 적용되었다면, 그 뜻은 ‘대량(또는 양질이) 되게 하여라/하십시오!’ 등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N. Poppe의 그 책 외에는 3인칭에도 적용되었다는 논점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가능성은 고려하기 어렵다.

17) “ŠENG [Ch. *sheng* 升] n. Measure for grain equal to 31.6 cubic inches (1/10 of a *dey*, Ch. *tou* 斗).” (F. D. Lessing, op. cit., p.754). 또 중국[清]의 李鋹 편찬(1891년) 『蒙文總彙』에서도 *šEng*을 ‘升’이라 하였다[“*šEng* … [漢] 升 … [8-7b:3].” 栗林均 편, 『蒙文總彙: モンゴル語ローマ字轉寫配列』, 仙台, 日本: 東北大學 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10, [https://tohoku.repo.nii.ac.j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detail&item\\_id=51258&item\\_no=1&page\\_id=33&block\\_id=38](https://tohoku.repo.nii.ac.j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detail&item_id=51258&item_no=1&page_id=33&block_id=38), Toh-Asi-Ken-2010-37.pdf, p.486]. 그리고 Oirat 문어에서는 이 말이 *seng*으로서 ‘量’을 뜻했다[“*seng* … *šEng*/1 量.” 栗林均 편, 『オイラート文語三種統合辭典』, 仙台, 日本: 東北大學 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17, <http://hkuri.cneas.tohoku.ac.jp/articles/roncho/a72soso61.pdf>, p.391]. 한편, C. R. Bawden, op. cit.에는 이 말이 실리지 않았다.

升(*sheng*; 몽골어 *seng* 등, 위구르어 *šing*)과 斤(*chin*; 몽골어 *jing*) 등 중국의 전통적 도량형 단위들이 13~14세기의 몽골-원 제국 내에서 사용되었음에 대하여는 성호경, 앞의 글, 15면에서 간략히 소개한 Dai Matsui의 연구결과들을 볼 것.

18) 몽골인들은 통상적으로 몽골 문어의 음들을 구어의 음들로서 대체해서 발음하는데, 몽골 문어의 *aya*와 *iya*는 구어적 발음에서 長母音 *ā*가 되었다. N. Poppe,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pp.36~37 (§102, §102-3, 4).



‘알라’ 곧 ‘알라아’를 명령법과 관련시킨다면, 그 원어로서 우선적으로 *yali-*에 명령법의 자원형(voluntative) 표지 어미 *-ya*(몽골 문어 *-y-a*, 중세 몽골어 *-yA*)가 붙은 *yali-ya*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동사 어간에 *-ya*가 붙은 자원형은 1인칭(주로 복수)에 쓰여서 한 행동을 수행하려는 1인칭의 소망·욕구를 나타낸다. 그 뜻은 ‘(우리가/내가) ……자/되시다!; (우리) ……이(또는 을) ……게 하자/합시다!’ 등이다.

자원형으로서의 *yali-ya*의 뜻은 ‘(우리가/내가) 대량(또는 양질)이 되자/되시다!’이거나, 그 뒤의 명사 *šeng*(‘되’로서, ‘곡식’의 환유일 수도 있음. *yali-*의 주어임<sup>19)</sup>)과 함께 ‘(우리) 대량(또는 양질)이 되게 하자/합시다, 되(곡식이)!’일 수 있다. 그런데 ‘대량(또는 양질)이 되다’의 주어가 ‘우리’(또는 ‘나’)일 수 없으므로, 뒤의 명사 *šeng*을 동반한 *yali-ya šeng*으로서 ‘(우리) 대량(또는 양질)이 되게 하자/합시다, 되(곡식이)!’가 적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알라성’은 강조 등을 위해 도치(倒置)된 문장인 *yali-ya šeng*(알라아/아라아 쟁/성)의 표기로서, 뜻이 ‘(우리) 대량(또는 양질)이 되게 하자/합시다, 되(곡식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알라’가 *yali-*의 2인칭 명령형 *yali*에 여러 몽골 방언들에서처럼 강조의 접미사로서 단어들의 끝에 첨가하는 장모음 *aa*<sup>20)</sup> 등이 붙어서 강조하는 형식인 *yali-aa*(알라아/아라아) 등의 표기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 뜻은 2인칭 명령형 *yali*보다 강조되고 공손한<sup>21)</sup> ‘제발 대량(또는 양질)이 되십시오/되소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이 13~14세기의 몽

그리고 몽골 공통어에서의 \*/i/로 시작하는 복모음의 첫 요소가 뒤의 요소에 동화되는 가장 흔한 변화(\**ia* > \**aa*, \**ie* > \**ee* 등)가 13세기 중엽(『원조비사』의 底本)에 이미 나타났다. Hans Nugteren, *Mongolic Phonology and the Qinghai-Gansu Languages*, Rotterdam, Netherlands: LOT, 2011, [http://www.lotpublications.nl/Documents/289\\_fulltext.pdf](http://www.lotpublications.nl/Documents/289_fulltext.pdf), p.88, pp.147~148, p.164, p.441 참고.

19) 그 명사에 아무런 조사(또는 접미사)도 붙지 않았으니, 주어(格助詞가 없음) 또는 목적어(對格 조사는 대체로 생략이 가능함)일 가능성이 큰데, 자동사 *yali-*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어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20) 몽골 방언들에서 장모음 *aa*는 강조를 위해 많이 쓰인다. 이 밖에도, 몽골어에서 장모음이 句末 위치에 동반되는 형식의 서술은 흔히 강조를 나타낸다고 한다(Juha Janhunen, “Khamigian Mongol,” J. Janhunen ed., op. cit., p.97). 그러나 이러한 형식이 13~14세기의 몽골어 자료들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21) 2인칭 명령형에 장모음 *-AA*(또는 *-ii-*)가 붙은 형식(‘간청형’)은 공손한 요청을 표현한다. N. Poppe,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pp.252~253 참고.

골어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sup>22)</sup>

제1연의 후렴에서만 나타나는 “알랑성” 속의 ‘알랑’은 자동사 *yali-* 또는 그 2인칭 명령형 *yali*에 *ang* 또는 *aang* 또는 *yan*이 붙은 명령법 형식(구어적 발음은 ‘알라양/아라양’)의 표기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명령법 형식의 정체로서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2인칭 명령형 *yali*에 *aa* 등과 비슷한 강조의 접미사인 *ang*<sup>23)</sup>이 붙은 *yali-ang*(뜻은 ‘꼭 대량 또는 양질이 되어라/되십시오!’ 등일 수 있음)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간접 명령형(the indirect imperative)으로서의 *yali-aang*일 가능성이 있다. Dagur어에는 동사 어간에 *-gAA/ng~-AA/ng*과 인칭 표시가 붙은 간접 명령형이 있는데(모든 인칭과 단수·복수에 쓰이며, ‘미루는 행동이나 공손함’을 나타냄),<sup>24)</sup> *yali-aang*이 간접 명령형이라면 뜻은 ‘제발 대량(또는 양질)이 되게 하십시오/하소서!’일 수 있다. 셋째는 *yali-*의 자원형 *yali-ya*의 뒤에 *-n*이 붙은 *yal i-ya-n*(그 뒤에 모음이 오지 않으면 ‘알라양’으로 발음됨)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서 첫째의 가능성은 13~14세기의 몽골어에, 앞에서 말한 *yali-aa* 등의 경우처럼, 그러한 형식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낮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의 가능성도, 13~14세기의 몽골어에서 간접 명령형이나 그 비슷한 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sup>25)</sup> ‘알랑’에 인칭 표시도 붙지 않았으므로, 배제

22) 성호경, 앞의 글, 18~19면에서는 ‘알랑’가 2인칭 명령형 *yali*에 강조하는 어미 *-aa*의 중세 몽골어 형태가 붙은 *yali-a’a*의 표기로서 뜻이 ‘반드시(꼭) 대량(또는 양질)이 되어라/되어 주소서’ 등일 수 있다고 하면서, ‘간칭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간칭형은 후대에 생겨난 유형으로서(N. Poppe, op. cit., p.252), 13~14세기의 몽골어에는 없었다.

23) Stephen S. Kim, “Santa,” J. Janhunen ed., op. cit., p.361에서는 Santa어에서 語末 不變化 詞(final particle)들인 *sha, ya, yo, ang*은 명령법과 함께 쓰여서 명령의 語調(tone)를 조정하는데, *ang*은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는 강한 제언이나 요구를 나타낸다고 했다.

24) Toshiro Tsumagari, “Dagur,” J. Janhunen ed., op. cit., pp.143~144에서는 Dagur어에서의 그 예문으로, 단수 1인칭 *yau-gaan-miny~yaw-oo-miny*(‘I will go later; let me go later!’), 2인칭 *yau-gaan-shiny~yaw-oon-shiny*, 3인칭 *yau-gaan-iiny~yaw-oon-iiny* 등을 들었다(각 문장들의 끝에 붙은 *miny, shiny, iiny*는 인칭 표시들이고, 그 표시 끝의 *ng*는 어말에서의 원래의 *\*n*과 *\*ng*가 합병된 것을 나타냄. Ibid., p.133).

25) 당시 간접 명령형과 비슷한 성격의 지녔던 양보형(3인칭 명령형)의 표지들(몽골 문어 *-tuyai/-tugei* 등, 중세 몽골어 *-DUKai*)은 Dagur어에서의 간접 명령형 표지 *-gAA/ng~-AA/ng*과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상당수 방언들에서의 허락형(표지는 원시 몽골어 또는 몽골 공통어 *\*g, \*gʷ*; Khalkha어 등 *-g*, Ordos어 *-gA*)은 Dagur어에서의 간접 명령형과 성격뿐만 아니라 형태도 비슷한 편이지만, 13~14세기의 몽골어에는 허락형(또 하나의 양보형)이 나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알랑’의 원어로서 셋째의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원시 몽골어(또는 몽골 공통어)에는 1인칭 복수의 자원형 표지 \**-yA*의 이형(異形)인 \**-yA-n*이 있었지만,<sup>26)</sup> 몽골 문어와 중세 몽골어의 자료들에서는 이 어미나 그 후계(後繼)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자원형 *yali-ya*에 *-n*이 붙어서 *yali-ya-n*이 된 경우는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Mogol어에서처럼 *yali-ya*에 ‘명령법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인칭 접미사’ *-n*이 붙은 것이고(이러한 *-yA-n*이 몽골 문어와 중세 몽골어의 자료들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Mogol어에서의 자원형 표지 어미들 중 복수에 쓰이는 *-yan*은 원시 몽골어에서의 \**-yA/n*에서 발달한 것이라고 함),<sup>27)</sup> 다른 하나는 *yali-ya*에 몽골 문어와 중세 몽골어에서 쓰인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미완료(未完了) 현재시제Ⅱ’의 어미 \**-n*이 붙은 것이다.<sup>28)</sup>

어느 쪽이 그 해석으로서 합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 뜻들은 서로 같거나 비슷하다. *yali-ya*처럼 뒤의 명사 *šeng*을 대동한 *yali-ya-n šeng*으로서, 둘 다 뜻이 ‘(우리) 대량(또는 양질)이 되게 하자/합시다, 되가(곡식이)!’일 수 있는데, 다른 하나에서 미완료의 현재진행을 강조하면 그 뜻은 ‘(우리) 대량(또는 양질)이 되고 있게 하자/합시다, 되가(곡식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뜻들은 *yali-ya šeng*과도 같거나 비슷하다.

나지 않았다(N. Poppe, op. cit., p.257).

26) J. Janhunen, “Proto-Mongolic,” p.23.

27) Michael Weiers, “Moghol,” J. Janhunen ed., op. cit., p.260.

한편, Ordos어에서 자원형의 특수한 표지인 *-y-An*(이형은 *-y-in*)은 단수에만 쓰인다고 한다(기본 표지인 *-y*와 그 이형 *-y-AA*는 단수·복수에 다 쓰임). Stefan Georg, “Ordos,” J. Janhunen ed., op. cit., pp.203~204.

28) 몽골 문어와 몽골의 구어들에서 완전한 문장의 서술어로서 쓰이는 동사의 직설법 형태들의 대다수는 동사적 명사(또는 動名詞)로부터 발달하였다. 그 형태들 중에 모든 몽골 구어들에 공통되고 많은 몽골 문어의 동사 파생 명사들에서 나타나는 ‘미완료 현재시제Ⅱ’의 기본 어미 \**-n*이 있다(‘현재와 미래 시제’인 ‘미완료 현재시제Ⅰ’의 기본 어미는 \**-m*임). 그런데 \**-n*으로 된 동사적 명사(또는 동명사)가 이른 시기에 副動詞(converb; 用言이 부사형 어미를 가진 어형)가 되어서, 이 형태는 몽골 문어와 중세 몽골어에서 樣態 부동사(주된 동사의 행동을 특정짓거나 정의하는 행동이 수행되는 방식을 나타냄) 어미로서만 나타나지만(예: 몽골 문어 *uysin* ‘reading’, 중세 몽골어 *iūžen* ‘seeing’. 선고전 문어와 중세 몽골어에서는 그 복수형인 *-d*가 서술 어미로서만 쓰였음), Mogol어에서는 아직도 완전한 문장의 서술 어미로서 쓰인다(예: *iranšī* < \**iran čī* ‘thou comest’). N. Poppe, op. cit., p.260, pp.262~263, p.276 참고.

‘되가(곡식이) 대량(또는 양질)이 됨’은 ‘곡식이 잘 자라고 잘 여물어서 수확이 많아짐(또는 알차게 됨)’으로서, ‘풍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알라리 알라” 속의 ‘알라리’는 몽골어 원어를 추정하기가 까다롭다.

‘알라리’는 자동사 *yali-* 또는 그 2인칭 명령형 *yali*의 뒤에 ‘아리’로 표기될 수 있는 소리의 말(*ari* 또는 *ali* 등)이 붙었거나 따라 나온 말의 표기일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몽골어에서 ‘아리’로 표기될 수 있을 소리(*ari* 또는 *ali* 등)의 어미나 접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sup>29)</sup> 그러므로 ‘아리’로 표기되었을 만한 말들 단어들에서 찾아야 할 것인데, 이에 적합한 단어로서 몽골 문어와 중세 몽골어의 타동사 *alil*(불완전동사로서 명령형으로만 쓰임. 뜻은 ‘주어라! 나에게 나오!’)<sup>30)</sup>가 있다.

*ali*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자동사 *yali-*의 ‘현재 동명사(동사적 명사)’ 형태인 *yalii* 등<sup>31)</sup>에 대격 조사 *-yi*<sup>32)</sup>가 붙은 *yalii-yi*(알리이/야리이; 뜻은 ‘대량 또는 양질이 됨’) 등이 그 목적어일 것이다.<sup>33)</sup>

29) 그 비슷한 형태의 어미로서 명령법의 규정형 표지인 *-ArAi*(Khalkha어) 등이 있지만, 몽골 문어와 중세 몽골어에서는 규정형 표지가 출현하지 않은 데다, 소리에서 *-arai*(아라이)와 ‘아리’ 간에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고, 몽골어의 통시적 변천이나 공시적 변이에서 *ai*가 *i*나 *ii*로 변한 사례도 드물므로, 그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다.

30) “ALI, 1. / АЛБ v.t. (imperative) Give! Give me!”(예문: *abuyad ali!* ‘Get it for me!’; *zyezed ali!* ‘Look it over for me! Read it for me!’. F. D. Lessing, op. cit., p.31); “АЛБ II. 1. give it here!, let’s have it! 2. (auxiliary particle used in a request), § ТАВЪЖ ~ let them go!, …”(C. R. Bawden, op. cit., p.15); “\*ali ‘give me’, with several extended forms. Behaves like a verb and takes objects.”(중세 몽골어 *ali*. H. Nugteren, op. cit., p.268).

31)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의 뒤에 어미 *-i*(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연결모음 *-u-*와 함께 사용됨)가 붙은 현재 동명사(*nomen praesentis*)는 일종의 現在分詞(present participle)로서, 限定詞[관형어]·목적어·서술어로 사용된다(N. Poppe,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pp.93~94, §357). 한 예로, 몽골 문어의 자동사 *ayis*(‘다가오다’)의 현재 동명사 *ayisui*는 ‘다가오는’·‘다가옴’·‘다가온다’의 세 가지로 쓰인다.

그런데 *yalii*처럼 *i*로 끝나는 동사 어간 뒤에 현재 동명사 어미 *-i*를 붙인 형태를 몽골 문어와 중세 몽골어의 동명사들에서 보기 어려운데, 그 형태가 혹 *yali*일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2) 몽골 문어 등에서 목적어 등에 붙는 대격 조사로는 모음이나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yi*를,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i*를 쓴다. Ibid., p.75(§288).

33) 한편, 알타이 공통어(Common Altaic)와 몽골 공통어에 \**i*로 된 동명사들이 있었으며, 선고전 문어와 중세 몽골어에서는 아직도 어미 *-i*가 약간의 동명사 형태들에서 나타났지만(대다수의 형태들은 化石化된 동명사들임), 주로 서술어로서 존재했다. N. Poppe,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p.264, p.268.

그렇다면 ‘알라리’는 *yalii-yi ali*(알리이 알리/야리이 아리) 등의 표기일 가능성이 적지 않고,<sup>34)</sup> 그 뜻은 ‘대량(또는 양질)이 됨을 다오/주십시오!’(의미상 ‘대량이 되게 해 다오/주십시오!’와 마찬가지로일 것임)일 수 있다.

그 뒤의 ‘알라’도 “알라성” 속의 ‘알라’와 같이, 자원형으로서 뜻이 ‘(우리) 대량(또는 양질)이 되게 하자/합시다!’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로 보아, “알라리 알라”는 ‘대량(또는 양질)이 됨을 다오/주십시오! (우리) 대량(또는 양질)이 되게 하자/합시다!’의 뜻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들을 종합하면, “알리 알리 알라성(또는 ‘알라성’) 알라리 알라”는 몽골어의 명사 *šeng*이 주어인 자동사 *yali*-를 어간으로 하는 두 개의 2인칭 명령형 문장들과 두 개의 자원형 문장들, 그리고 *yali*-의 현재 동명사형 목적어 뒤에 타동사 *ali*의 2인칭 명령형이 나오는 문장이 이어진 것의 표기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는 모두 곡식의 수확이 많은(또는 알찬) 풍작이 되기를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들일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시용향악보』에 실린 제1연의 후렴 “알리 알리 알라 알라성 알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III.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의 특질

앞의 고찰에서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청산별곡>의 후렴 “알리 알리 알라성(또는 ‘알라성’) 알라”의 특질에 대해서 살펴보자.

“알리 알리 알라성(또는 ‘알라성’) 알라리 알라”는 *šeng*(‘되’)로서, ‘곡식’의

---

이런 점으로 보면, *yalii*(또는 *yali*)가 13~14세기에 현재 동명사 형태로서 목적어로 쓰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엄정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34) ‘알라리’(알리이 알리) 속의 ‘알리(알리이)’는 그 뒤의 타동사 *ali*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동명사+대격 조사이거나 또는 앞 주 30)에서의 예문들처럼 목적어가 생략된 타동사의 부동사 [그 예문들에서는 타동사 *ab-*(‘잡다’)과 *ijje-*(‘보다’)에 완료 부동사 어미 *-yad/-ged*가 붙은 것들과 타동사 *tabi-*(‘농다’)에 미완료 부동사 어미 *či*가 붙은 것임]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알라리’에서 *ali*를 제외하는 형태 속에 그러한 부동사 어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알라리’는 *yalii-yi* 등(동명사 목적어)+*ali*(타동사)의 표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환유일 수도 있음)이 주체인 작용(또는 행동) *yali*-(‘대량이 되다; 양질이 되다’)를 어간으로 하는 두 개의 2인칭 명령형들과 두 개의 자원형들, 그리고 *yali*-의 현재 동명사형에 대격 조사가 붙은 말을 목적으로 하는 타동사 *ali*-(‘주어라! 나에게 다오!’)의 2인칭 명령형이 이어진 것의 표기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로써 보면, 뚜렷이 명시되지 않은 청자(聽者; 표면적으로는 *šeng*이겠지만, 의미상으로는 ‘곡식’이 더 적합할 것임)를 향해 그것의 작용(또는 행동)을 화자(話者)가 직접 요구하는 2인칭 명령형 *yali*가 반복되고, 이어서 자원형 *yali-ya* (제1연에서는 그 이형으로서 명령이 1인칭 복수에 적용됨을 나타내는 형식이거나 미완료 현재형일 수 있는 *yali-ya-n*; 청자는 화자 자신을 포함하는 ‘우리’임)의 뒤에 주어 *šeng*이 도치되어 나온 뒤, ‘*yali*-의 현재 동명사형 목적어 *yalii-yi* 등+*ali*의 2인칭 명령형’(청자는 ‘超越者’일 것임)에 이어 다시 자원형 *yali-ya*로 끝난다.

그 각 문장들의 뜻을 한국어의 ‘하십시오체’로 옮겨 보면,<sup>35)</sup> ① ‘대량(또는 양질)이 되십시오!’ ② ‘대량이 되십시오!’ ③ ‘(우리) 대량이 되게 하십시오, 되가(곡식이)!’ ④ ‘대량이 됨을 주십시오!’ ⑤ ‘(우리) 대량이 되게 하십시오!’ 등일 수 있다.

이러한 각 문장들의 원어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몽골어와 그 명령문들의 형식 및 구성과 뜻 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35) 몽골어에서의 2인칭 명령형은 엄격한 명령을 나타내지만, 그 청자 待遇의 등급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을 수 있다. 김학선,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명령·원망법 어미 대조 연구』, 『몽골학』 제20집, 한국몽골학회, 2006, 169~177면, 185면에서는, 현대 몽골어의 명령법에서 ‘동사 어간+Ø(어미가 없음)’ 형식 곧 2인칭 명령형이 한국어의 청자대우법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어/야’형(‘-어라’형보다도 낮음)에만 대응한다고 했다. 그러나 2인칭 명령형이 한국어의 청자대우법 중 가장 낮은 등급에만 대응하는지 미심쩍은 데다, 명령법 유형들이 현대 몽골어만큼 다양하지 않았던 13~14세기의 몽골어에서는 사정이 달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13세기 중엽 무렵의 중세 몽골어로 된 『원조비사』의 韓·蒙 對譯(유원수 역주, 『몽골비사』, 사계절, 2004)을 살펴보면, ‘아주낮춤’의 경우는 물론이고, 하위자(하녀, 신하, 義子 등)인 화자가 상위자(여주인, 군주, 義父 등)인 청자에게 ‘아주높임’으로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들까지도 상당수가 2인칭 명령형으로 이루어졌다(§2-98 *bos* 2회, §3-121 *sonos*, §6-177 *ile* 2회, §6-181 *ile* 등. 그 명령법의 ‘아주높임’에는 양보형이 많았고, 자원형과 소원형도 상당수였음).

이러한 점을 참고하며 懇請 또는 祈願의 성격이 다분한 그 후렴의 내용에 유의하여, 여기서의 2인칭 명령형과 자원형을 모두 ‘아주높임’으로 옮겨 본다.

알리 <i>yali</i>	알리 <i>yali</i>	알라 <i>yali-ya</i> 알랑 <i>yali-ya-n</i>	성 <i>ŋeng</i>	알라리 <i>yalii-yi ali</i>	알라 <i>yali-ya</i>
2인칭 명령형A	2인칭 명령형A	자원형A 자원형A'	주어	목적어(동명사+조사) +2인칭 명령형B	자원형A
대량이 되십시오!	대량이 되십시오!	대량이 되게 하십시오!	되가 (곡식이)	대량이 됨을 주십시오!	대량이 되게 하십시오!

그 작자는 뜻과 소리가 비슷한 몽골어의 명령법 형식들을 변화감 있게 반복하고 청자를 바꾸어 가며(①·② ‘되’ 곧 ‘곡식’→③ ‘우리’→④ ‘초월자’→⑤ ‘우리’), 풍작이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요구·요청을 묘미 있게 표현하고 사물·사람·초월자를 향해(곧 天·地·人에 다 걸쳐서) 전방위적(全方位的)으로 청원(請願)하게 했다.

이러한 몽골어 문장들의 뜻과 표현상의 특질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몰랐겠지만, 몽골-원에서 청소년기 등을 보낸 고려의 임금들(제26대 忠宣王, 제27대 忠肅王, 제28대 忠惠王, 제31대 恭愍王 등)과 거기서 여러 해 동안 지냈던 일부 상층인들 등은 알아차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후렴은 대체로 ‘*yali yali*∨*yali-ya ŋeng* || *yalii-yi ali*∨*yali-ya*’와 같이 앞 구(句)와 뒷 구가 짝對]을 이룬 속에서 음보(音步; metrical foot)가 각 구 두 개씩인 4음보로 울독(律讀)될 것이다(앞 구는 독자들에 따라 간혹 ‘*yali*∨*yali*∨*yali-ya ŋeng*’의 세 음보로 울독될 수도 있을 것임). 이는 대체로 앞뒤 구의 균제(均齊; 對稱)와 구내(句內) 음보들의 짝지음을 통해 안정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후렴의 4음보는 <청산별곡> 본문의 3음보격(trimeter)이 지닌 불안정한 유동성(流動性)<sup>36)</sup>에 안정감을 보태 줄 수 있다. 그리고 앞 시행들의 3음보격과는 달리 끝의 후렴이 4음보로 된 것은 일종의 ‘종결부 변형(terminal modification)’으로서 각 연들에서 결말의 느낌을 강화할 수도 있다.<sup>37)</sup>

그러한 가운데, *ŋeng* 외에는, 자음에서 발음의 장애를 가장 적게 받는 유음(流音) *l*이 쓰이고(제1연에서는 鼻音 *ng*도 쓰임), 모음에서 양성모음(陽性母音)인 *a* 위주이면서 그 소리가 발음을 매끄럽게 하는 활음(滑音) *y*(반

36) 성호경, 앞의 책, 198면 등 참고.

37) Barbara Herrnstein Smith, *Poetic Clos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36, p.50 참고.

자음)와 결합되거나 그 소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중성모음 *i*와 교대되기도 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하면서 원활하고 유창하며 밝고 산뜻한 어감(語感)을 준다.

그리고 형태 및 소리의 배열에서, 동사 어간 *yali*와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 및 소리의 어미 *-ya*, *-ya-n* 등 또는 동사 *ali*가 붙거나 이어지는 말들의 반복('polyptoton')은 '통일성 확보와 그 속에서의 변화성(또는 다양성) 부여, 주제의 강조와 확장, 일종의 말장난으로서 재미를 줌'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sup>38)</sup> 또 같거나 비슷한 모음들 또는 자음들의 조합('assonance', 'consonance')은 청각적인 조화를 기하고, 그것과 긴밀히 관련되는 메아리[反響] 비슷한 효과<sup>39)</sup>와 함께 압운(押韻; rhyme) 및 두운(頭韻; alliteration)과 유사한 효과<sup>40)</sup>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소리의 특질들은 그 말들을 한글로써 표기한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그리고 『시용향약보』에 실린 “알리 알리 알라 알라성 알라”)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앞과 같은 뜻과 소리의 특질은 <청산별곡>의 시상(‘행복한 삶을 추구하여 청산과 바다에 歸依한 사람이 그 속에서 비애와 고독만 겪다가, 그 좌절이 운명적임을 깨닫고 절망하며 속세로 돌아가다가 술에 빠져버림’) 및 정서(불쾌하면서 強度가 낮은 ‘슬픔’<sup>41)</sup> 위주임)와는 단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엉뚱한 후렴’<sup>42)</sup>이 <청산별곡>에 쓰인 것은,

38) 반복의 주요 기능과 효과에는 통일(통합)을 중심으로 하여 보충과 강조 그리고 재미있음 등이 있다(Stephen F. Fogle, “Repetition,” Alex Preminger, Frank J. Warnke and O. B. Hardison Jr. ed.,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Enlarged edition, London and Basingstoke, Hampshire: Macmillan Press, 1975, pp.699~701 등 참고). 그 가운데서 같은 語根 또는 어간이면서 다른 형태들로 된 단어들의 반복은 귀에 싫증남이 없이 定型化를 증가시키고, 주제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기도 한다(T. V. F. Brogan, “Polyptoton,” Alex Preminger and T. V. F. Brogan ed.,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New Jersey and Chichester, West Sussex: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967 참고).

39) 그 효과는 ‘본래의 소리와 같거나 유사한 소리들이 여러 번 출현해서, 메아리의 지연된 반사음들이 울리는 것처럼 일정한 시·공간 내에서 지배적이거나 가장 현저한 소리로서 강렬한 인상을 준 뒤, 점차 희미해지거나 곧 사라짐으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 등일 것이다.

40) 脚韻(end rhyme) 등의 압운과 두운은 ‘소리의 일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소리의 반복을 통해 쾌감을 주고, 그 소리들의 音相이나 음성상징으로써 시의 情調나 분위기를 조성하여 詩情을 강화한다. 성호경, 『한국시가의 형식』, 새문사, 1999, 33면 등 참고.

41) Jerome Kagan 지, 노승영 역, 『정서란 무엇인가?』, 아카넷, 2009, 170면 참고.

42) 참고로, 譯詩(ballad)들에서의 ‘엉뚱한 후렴(irrelevant refrain)’은 그 시의 공식적이고 儀禮



그 작품의 고려 궁중 공연[宮中呈才]에서 임금에 대한 찬양으로서의 성격을 떨 수 있던 ‘풍작·풍년에 대한 찬양이나 기원 또는 요청’의 말(43)을 주요 향수자이자 후원자인 임금에 대한 헌사(獻辭) 또는 치어(致語; 致詞)로 삼아서 조흥(助興)의 구실을 많이 하는 후렴의 자리에 넣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sup>44)</sup> 이는 <청산별곡> 후렴의 소리들과 그 배열이 흥을 돋우기에도 매우 적합하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 IV. 결론

필자는 고려속요 작품 <청산별곡>의 후렴이, 무의미한 구음이나 의성이 아니라, 몽골어를 표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그 뜻을 몽골어로써 거칠게나마 파악해 보았고, 그 특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알리 알리 알라성(또는 ‘알랑성’) 알라리 알라”는 몽골어의 명사 *ᠰᠡᠩ*(뜻은

의이기까지 한 성격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M. J. C. Hodgart, *The Ballad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2, p.32.

43) 농업이 기간산업이었던 前近代의 君主制 국가들에서는 國政과 民生 안정의 기본 과제인 풍작·풍년을 찬양하거나 기원함이 그 최고 책임자였던 임금에 대한 찬양과 頌祝에서의 주요 요소들의 하나였다. 특히 13세기 후반(또는 14세기 초)부터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낮아진 寒冷期(또는 小氷期) 속에서 곡식 수확이 크게 감소한 흉년을 자주 겪은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 등에는 풍작·풍년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매우 간절하였다(고려 후기의 그 구체적인 실상은 성호경, 앞의 글, 23면을 볼 것). 그러므로 그 시기들에는 풍작·풍년에 대한 찬양이나 기원이 임금에 대한 찬양·송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그러한 시가 작품들의 예로, 고려 후기 작으로 추정되는 <서경별곡>·<가시리>의 후렴들(뒤의 주 44)을 참고할 것) 등과, 15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儒林歌>(전 6연) 제 1연 속의 “... 聖主 | 重興하시니 百穀이 豊登하샤다”(『악장가사』)와 1490년에 成倪 등이 지은 <北殿>(고려 충혜왕 작 <後殿眞勾>의 改撰歌) 속의 “... 大有年하니/ 禾稼 | 與雲連이로다/ ... 萬家烟火 | 여 大平民이로다/ 撫五辰하시니/ 聖壽無疆하샤 千萬春이쇼셔”(『樂學軌範』 권5, 『鶴 蓮花臺 處容舞 合說』) 등이 있다.

44) 이러한 점은 <청산별곡>과 마찬가지로 궁중에서 공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경별곡>과 <가시리>의 후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경별곡>의 후렴(“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다령”) 속 ‘두어령성’은 몽골어 어구 *di üreng ᠰᠡᠩ*의 표기로서 뜻이 ‘가득 찬 되’일 수 있고, <가시리>의 후렴(“위 증즐가 太平盛代”) 속 ‘증즐가’는 몽골어 문장 *jing jir ya*의 표기로서 뜻이 ‘저울이 아주 기뻐하다, 무계가 풍성하게 되다’일 수 있다. 이 말들은 모두 뜻이 ‘풍작·풍년을 찬양하거나 기원함’일 수 있으며, 그 작품들의 시상 및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들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같은 글, 22~23면 등을 볼 것.

‘되[升]’)이 주어인 자동사 *yali*-('매우 많은 양이 되다; 좋은 품질이 되다')의 2인칭 명령형(*yali*)들과 자원형들(*yali-ya*, *yali-ya-n*), 그리고 *yali*-의 현재 동명사형에 대격 조사가 붙은 말(*yalii-yi* 등)을 목적으로 한 타동사 *ali*('주어라! 나에게 다오!')의 2인칭 명령형이 이어진 것의 표기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뜻은 '대량(또는 양질)이 되십시오! 대량이 되십시오! (우리) 대량이 되게 하십시오, 되가(곡식이)! 대량이 됩을 주십시오! 대량이 되게 하십시오!' 등일 수 있다. 이는 모두 풍작이 되기를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들일 것이다.

그 작자는 뜻과 형태가 비슷한 몽골어의 명령법 형식들을 변화감 있게 반복하고 청자를 바꾸어 가며, 풍작을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요구·요청을 모미 있게 표현하고 전방위적으로 청원하게 했다.

후렴의 4음보는 작품 본문의 3음보격이 지닌 불안정한 유동성에 안정감을 보태 줄 수 있고, 또 일종의 '종결부 변형'으로서 각 연들에서 결말의 느낌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 소리들은 단조로움을 피하면서 원활하고 유창하며 밝고 산뜻한 어감을 준다. 그리고 그 형태와 소리의 배열에서, 같은 어간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어미들이 붙은 말들 등의 반복은 '통일성 확보와 그 속에서의 변화성(또는 다양성) 부여, 주제의 강조와 확장, 재미를 줌'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같거나 비슷한 모음들 또는 자음들의 조합은 청각적인 조화와 관련되는 효과들을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은 뜻과 소리의 특질을 지니기에, <청산별곡>의 시상 및 정서와는 판관인 그 말들이 고려 궁중 공연에서 임금에 대한 찬양의 성격을 띠 수 있는 말로서 후렴 자리에 들어갔으며, 조흥의 구실도 인상적으로 잘 수행했을 것이다.

이러한 고찰에서 필자의 소양 부족과 참고할 수 있는 몽골어 자료들 및 연구 성과들의 제약 등으로 인해, <청산별곡>과 그 후렴이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13세기 말엽~14세기 말엽 동안에 몽골-원에서 사용된 몽골어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추정이 있었을 수 있다. 또 그 무렵의 몽골어 자료들에서 *yali*-가 '매우 많은 양이 되다; 좋은 품질이 되다'의 뜻으로 쓰이고 활용된 실례(實例) 등을 확인하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다른 해석들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필자의 해석이 뚜렷한 판단으로 나아가

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몽골어 관련 전문가 등의 올바른 지적과 수정 및 보완이 있어서, 그 결과가 <청산별곡> 후렴의 실상을 더 충실하게 그리고 뚜렷이 밝히게 되기를 기대한다.<sup>45)</sup>

그리고 고려시가의 다른 작품들에서의 후렴과 조흥구 등에 대해서도 몽골어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sup>46)</sup>

---

45) ‘알라성’ 등과 비슷한 소리의 말들이 13세기 중엽부터 수백 년간 몽골과 정치적·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Tibet의 민요 등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말들에 대한 고찰이 도움될 수도 있을 것이다.

“Tibetan Song By Lhakyi”(https://www.youtube.com/watch?v=6IKDYDgajbo&feature=youtu.be)의 가사 속에 “알라라 알라 알라쇼(?)”의 반복이 4회 나오며, 티베트의 민요풍 노래들의 가사(‘자연 찬미’가 두드러짐) 속에 뜻이 불분명한 ‘ya la suo(또는 so)’를 쓴 것도 상당수 있다. 그리고 티베트의 독실한 불교신자들은 돌 더미에 돌 하나를 더하면서 전통적인 기도로서 “So-ya-la-so”를 중얼댄다고 한다(http://content.time.com/time/subscriber/article/0,33009,864579,00.html).

46) 성호경, 앞의 글, 13~21면에서 <서경별곡> 후렴 속의 “두어령성”과 <가시리> 후렴 속의 “증즐가” 외에, 감탄사 ‘위’와 <思母曲> 조흥구 속의 “덩터등성” 등도 몽골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 참고문헌

### 1. 자료

- 成俔·柳子光·申末平 등, 『樂學軌範』, 영인본, 대제각, 1973.  
『時用鄉樂譜』, 영인본, 대제각, 1973.  
『樂章歌詞』, 영인본, 대제각, 1973.

유원수 역주, 『몽골비사』, 사계절, 2004.

“Tibetan Song By Lhakyi,” <https://www.youtube.com/watch?v=6lKDYDgajbo&feature=youtu.be>.

### 2. 단행본

- 성호경, 『한국시가의 형식』, 새문사, 1999.  
성호경, 『한국 고전시가 총론』, 태학사, 2016.  
양주동, 『麗謠箋注』, 을유문화사, 1947.  
이성규, 『蒙學三書의 몽고어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2002.

Hodgart, M. J. C., *The Ballad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2.

Janhunen, Juha ed., *The Mongolic Languages*, New York: Routledge, 2003,  
[https://media.turuz.com/Language/2011/0214-Mongolic\\_languages\(mogh\\_ol\\_dili\)\(juha\\_janhunen\).pdf](https://media.turuz.com/Language/2011/0214-Mongolic_languages(mogh_ol_dili)(juha_janhunen).pdf).

Kagan, Jerome, *What is Emotion?*, 노승영 역, 『정서란 무엇인가?』, 아카넷, 2009.

Nugteren, Hans, *Mongolic Phonology and the Qinghai-Gansu Languages*, Rotterdam, Netherlands: LOT, 2011, [http://www.lotpublications.nl/Documents/289\\_fulltext.pdf](http://www.lotpublications.nl/Documents/289_fulltext.pdf).

Poppe, Nicholas,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Wiesbaden, Germany: Otto Harrassowitz, 1954/1964.

Poppe, Nicholas 저, 유원수 역, 『몽골문어문법』, 민음사, 1992.

Poppe, Nicholas,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Helsinki, Finland: Soumalais-Ugrianinen, 1955/1987, [http://altaica.ru/LIBRARY/POPPE/mongol\\_intro.pdf](http://altaica.ru/LIBRARY/POPPE/mongol_intro.pdf).

Smith, Barbara Herrnstein, *Poetic Clos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3. 논문

- 김학선,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명령·원망법 어미 대조 연구』, 『몽골학』 제20집, 한국몽골학회, 2006, 164~186면.
- 성호경, 『고려시가의 ‘무의미해 보이지만 유의미한 후렴’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56집, 한국고전문학회, 2019, 5~35면.
- 정병욱, 『악기의 구음으로 본 별곡의 여음구』, 『관악어문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1~26면.
- 최기호, 『<청산별곡>의 형성과 몽골 요소』, 『몽골학』 제13집, 한국몽골학회, 2002, 1~31면.
- Brogan, T. V. F., “Polyptoton,” Alex Preminger and T. V. F. Brogan ed.,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New Jersey and Chichester, West Sussex: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967~968.
- Fogle, Stephen F., “Repetition,” Alex Preminger, Frank J. Warnke and O. B. Hardison Jr. ed.,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Enlarged edition, London and Basingstoke, Hampshire: Macmillan Press, 1975, pp.699~701.
- Georg, Stefan, “Ordos,” Juha Janhunen ed., *The Mongolic Languages*, New York: Routledge, 2003, pp.193~211.
- Janhunen, Juha, “Proto-Mongolic,” Juha Janhunen ed., *The Mongolic Languages*, New York: Routledge, 2003, pp.1~29.
- Janhunen, Juha, “Written Mongol,” Juha Janhunen ed., *The Mongolic Languages*, New York: Routledge, 2003, pp.30~56.
- Janhunen, Juha, “Khamnigan Mongol,” Juha Janhunen ed., *The Mongolic Languages*, New York: Routledge, 2003, pp.83~101.
- Kim, Stephen S., “Santa,” Juha Janhunen ed., *The Mongolic Languages*, New York: Routledge, 2003, pp.346~363.
- Rybatzki, Volker, “Middle Mongol,” Juha Janhunen ed., *The Mongolic Languages*, New York: Routledge, 2003, pp.57~82.
- Tsumagari, Toshiro, “Dagur,” Juha Janhunen ed., *The Mongolic Languages*, New York: Routledge, 2003, pp.129~153.
- Weiers, Michael, “Moghul,” Juha Janhunen ed., *The Mongolic Languages*, New York: Routledge, 2003, pp.248~264.

4. 기타(사전)

김기선, 『몽골어의 문자와 발음』, 이상하 외, 『세계 언어백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미 오시스 연구센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95523&cid=58250&categoryId=58250>.

栗林 均 편, 『蒙文總彙: モンゴル語ローマ字轉寫配列』, 仙台, 日本: 東北大學 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10, [https://tohoku.repo.nii.ac.j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detail&item\\_id=51258&item\\_no=1&page\\_id=33&block\\_id=38](https://tohoku.repo.nii.ac.j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detail&item_id=51258&item_no=1&page_id=33&block_id=38), Toh-Asi-Ken-2010-37.pdf.

栗林 均 편, 『オイラート文語三種統合辭典』, 仙台, 日本: 東北大學 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17, <http://hkuri.cneas.tohoku.ac.jp/articles/roncho/a72sosh61.pdf>.

Bawden, Charles R., *Mongolian-English Dictionary*,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1997, <http://altaica.ru/LIBRARY/mong/Bawden,%20Charles%20-%20Mongolian%20English%20Dictionary.pdf>.

Lessing, Ferdinand D., *Mongolian-English Dictiona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60/2015.

## On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frain in *Cheongsan-byeolgok*

Seong, Ho-gyong

The refrain of *Cheongsan-byeolgok*, a Korean poem in the late Goryeo period,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might be the writing of five Mongolian sentences in the forms of the imperative of the second person and the voluntative of or with the verb *yali*-(‘to be in great quantity; to be of good quality’) and its subject *šeng*(‘a unit of measurement for volume’). The sentences demand or request something or someone for grains to be in great quantity(or to be of good quality), with the wish for a good harvest.

The four feet meter in the refrain may supplement the stability to the poem. And as a sort of terminal modification, it may reinforce the feeling of finality of each stanzas.

The sounds in the refrain serve the smooth, fluent, bright and refreshing feelings avoiding monotony. And the arrangement of the forms and sounds has some important functions and the effect of auditory harmony and so on.

Although they are irrelevant to the meaning and emotion of the poem in Korean, the sentences might have been entered into the position of refrain as a sort of praise to king at the performance of *Cheongsan-byeolgok* in the royal palace. And the refrain has played an impressive role as the words of adding to the fun.

keywords: *Cheongsan-byeolgok*, refrain, *yali*, *yala*, *sheong*, *yalang*, *yalari*, Mongolian, meaning, characteristics, imperative, *yali*-, *šeng*

접수일자: 2020. 3. 31. 심사기간: 2020. 4. 1.~2020. 5. 10. 게재결정: 2020. 5. 10.
--